

담양군, 추월산~금성산 4.2km 케이블카 추진



대나무로 유명한 죽향(竹鄕) 담양의 숨은 자연유산들이 기막힌 실화와 함께 전해지면서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고 담양군이 7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상계를 왕위에 등극하게 했다는 실화를 간직한 삼신산, 누워있는 부처를 닮은 추월산, 용의 형상을 갖고 있는 담양호.

관광자원의 보고(寶庫)인 담양군이 1000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추월산과 금성산을 잇는 4.2km 길이의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한다.

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환경·재해영향성 평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담양

호 관광지 내 추월산지구에 케이블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일 차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비교 검토와 산악형·해양형·혼합형 등 타 지역 케이블카 운영 사례 연구, 최적 노선과 기간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중

심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담양호·추월산 케이블카는 총연장 4.2km로, 1구간은 추월산 주차장~정상 1.3km, 2구간은 추월산 정상~금성산까지 2.9km다. 사업비는 472억8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전역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담양호 잔잔한 아름다움과 일

1000만 관광시대 목표...472억 소요 예상 문화재·환경·재해 영향성 평가가 관건

출·입물로 유명한 추월산의 비경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어 연간 최대 1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관광용 케이블카가 모두 흑자를 내고 있고, 지역 내 여수 해양케이블카와 해남 두문산 케이블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됐다. 담양호 일대에 수상 레저와 숙박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반면 사적으로 지정된 담양 금성산성 등 문화재와 산림, 호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걸림돌이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선 환경과 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현상 변경 등 까다로운 심의를 좁좁이 통과해야 하고, 환경단체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군은 담양호 경관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1, 2구간을 동시에 개발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군 관계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충분히 고려해 수익과 보전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파프리카·수국 수출 강진군이 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8년도 원예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조사·평가에서 농림회사법인 탐진들은 채소류부문 최우수 단지에, 그린화훼영농법인인 화훼류부문 최우수 단지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품질·안전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1994년부터 수출 전문단지 지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품목별로 생산물 생산단지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산물의 수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별 평가를 2004년부터 실시해 단계별로 저평가, 일반, 우수, 최우수단지를 지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품목별 단지의 수출 실적 및 증가율, 수출비중, 집단화 정도, 계약재배 및 품질인증 비중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했다.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농림회사법인 탐진들은 시장규모가 크고 수요

탐진들법인·그린화훼영농법인 최우수 수출전문단지 지정돼 "수출확대 다변화 적극 대응"

가 안정적인 대일 수출품목으로 파프리카를 선택해 연간 2천475톤 71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그중 43%를 수출하고 있다.

그린화훼영농법인은 2006년에 수국을 도입하고 현재 17농가가 4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의 45%를 일본으로 수출해 대일 수출 물량의 91%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절화수국 수출단지로 성장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 엔화 약세 등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기회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수출을 위한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 사업을 집중 지원해 수출확대 및 다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규모화, 첨단화를 농업의 미래로 보고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45억원이 투자된 5ha 규모의 첨단 유리온실인 반밀폐형 온실을 전국에서 두 번째 전남에서 최초로 설치해 농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보건소, 건강운동 인기 짱 매주 2회(화·목) 직장인 등 위해 오후 7시 운영



영암군보건소는 지난 7월부터 보건소 회의실에서 건강운동으로 '비

만NO 슬림OK' 슬로건 아래 태권에 어로박을 매주 2회(화,목요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및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낮에 운동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퇴근 후 운동할 수 있도록 오후 7시에 운영하고 있어 더욱 반응이 뜨겁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며 기압소리와 음악에 맞춰 태권어로박, 스트레칭, 근력강화운동 등을 태권어로박 전문강사가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전·후 혈압, 혈당, 체성분검사 등을 측정하여 몸 상태가 변화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올바른 신체활동 지식제공과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유도 등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암=조대로 기자

목포시, 항구축제 재능기부 참가자 모집 내달 17일까지 접수...축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

목포시가 오는 8월 17일까지 가을에 개최할 예정인 목포항구축제에 함께 할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올해 축제는 문화예술이 번성하는 옛 목포항의 영화를 재현하고 바다 위에 어시장 파시장터를 주제로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목포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재능기부자가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프린지 공연 무대와 체험공간을 마련해 관광객에게 참신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노래, 연주, 미술 등 무대공연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행사 등이다. 그밖에 다른 재능기부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라

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mokpo.go.kr) 및 축제홈페이지(mokpofestival.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clef360@koreakr)이나 팩스(270-8569)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관광과(270-84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목포항구축제를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축제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재능있는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 막걸리를 디자인하다

녹색문화대학 수료생 대상 막걸리 소믈리에 상온 교육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녹색문화대학 농산물발효과정 수료생 35여명을 대상으로 막걸리 소믈리에 상온(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온(尙?)은 조선시대 내시부에 소속된 정3품 당상관으로 주로 왕실 사람들 시종과 함께 술 빚는 일을 관장하는 직책을 말한다.

이번 막걸리 소믈리에 상온 교육은 총 3일 6회에 걸쳐 양조의 원리, 막걸리 발효와 숙성, 누룩, 주세법과 하우스막걸리 창업, 술의 특성과 음식의 조화 등의 내용으로 술디자인 김성만 원장(한국천연발효연구원)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에 나선 김성만 원장은 막

걸리 만들기 과정을 쉽고 재미있는 발효 원리 교육으로 실생활에 바로 만들고 음용할 수 있도록 열린 강의를 펼쳤다. 수강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은 폭염경보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윤호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통주의 기초가 되는 막걸리를 직접 빚고 술을 우리음식·문화·전통·역사 등과 연결해강진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 건강을 위해 천연 발효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직접 만들어 음용 가능한 발효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임동 010-2656-4543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오치 010-7532-3313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동운 018-611-7751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